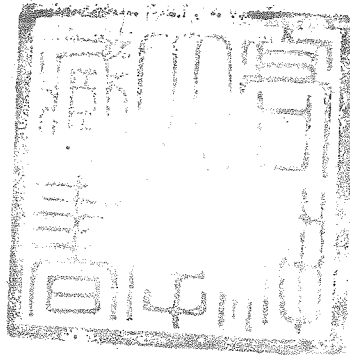


CT
248
29297

基督教 綱要에 나타난 칼빈의 信仰


'FAITH' IN THE CALVIN'S INSTITUTES
OF RELIGION



1991
亞細亞聯合神學研究院

神學科 歷史神學 專攻

黃 國 煥

 고신대학교



DM00001535

1519

基督教綱要에 나타난 칼빈의 信仰

지도 김 기 홍 교수

이 論文을 神學文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0年 9月 日

亞細亞聯合神學研究院

神學科 歷史神學 專攻

黃 國 煥

黃國煥의 神學文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審教授

Thy 亨

副審教授

이 영 호

副審教授

Youngkwan Ahn

亞細亞聯合神學研究院

1990年 9月 日

感謝의 말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좋은 강의로 가르치시며, 깨우쳐 주시고, 많은 부족한 점들을 잘 지도해 주셔서 논문을 완성케 해주신 주심 김기홍 교수님, 부심 유광웅, 안영권 교수님과 ACTS의 여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신 홍종각 목사님과 목회와 학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뒷받침해 주신 박영철 목사님, 출판에 도움을 주신 이영재 장로님과 도원동교회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 때에 함께 학업을 하며, 용기를 주고 도와준 이남재 목사님과 강호목사님, 여러 동역자들의 은혜도 잊을 수 없습니다.

늘 곁에서 격려해 주고, 학업으로 인한 불편을 참아가며, 기도로 도와준 아내와 빛나, 나라 그리고 뒤에서 말없이 기도해 주신 부모님께 고마움의 표시로 이 논문을 드립니다.

1990년 8월

황 국 환

목 차

제 1 장 서 론	1
A. 연구 의의와 문제 제기	1
B. 연구 범위와 구성	3
제 2 장 신앙의 전제	7
A. 하나님의 거룩성	7
B. 인간의 죄성	12
1. 창조된 인간	12
2. 타락한 인간	17
제 3 장 신앙의 발생	24
A. 종교의 씨앗	24
B. 하나님의 주권	28
C. 예수 그리스도	31
D. 말씀의 사역	38
E. 성령의 사역	41
제 4 장 신앙의 내용 -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46
A. 성육하신 그리스도	47
1.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50
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53
B.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	56

C.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61
D.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69
제 5 장 신앙의 과정과 결과(이득)	78
A. 중생 (회개 - 칭의)	78
1. 중생	78
2. 칭의	85
B. 성화	88
C. 영화	94
제 6 장 결 론	99
* 참고 도서	103
* 영문 초록	108

제 1 장 서 론

A. 연구 의의와 문제 제기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같이 신앙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시기는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문제에 관하여서는 매우 혼동된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게 된다. 교회마다 축복 대성회를 개최하는게 유행이며,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받으면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한 것이요, 잘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 축복 받았다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기독교가 신앙의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인 것을 보게 된다. 순수하고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느덧 자취를 감춘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우선시 하는 주의들이 신앙이란 명목하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임을 보여 준다. 비단 이와 같은 주의들이 외국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잠시전에 논한 것처럼 우리 교회들의 강단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할수 있다”는 표어를 책상이나 교회 벽면에 부착시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좋다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일찌기 사도바울도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빌립보서 4:1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의 내용을 믿기 때

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신앙은 성경적 신앙일 수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인본주의적 생각이 가미된 “할 수 있다”(Yes, I can)는 생각,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저절로 잘 되간다는 주의가 앞서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이제 신앙의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되는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정확히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이 신앙은 절대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가능성이 아니다. 신앙은 자아의 내적 잠재능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의 올바른 상태를 견지할 때 진정한 신앙이 된다. 그런데 신앙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신앙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칼빈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정통신앙을 제시해주는 위대한 신학자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당시 유행하던 르네상스(renaissance)시대 이후의 인본주의자들이 지녔던 신앙이 중요하지 않았다. 인간 중심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미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들과 달리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위엄, 영광같은 낱말이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며,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 성령의 사역들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칼빈의 신앙관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가? 그 내용들은 계속해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신앙을 지닌 신자들이 소유하게 될 유익(혹은 결과)이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을 일으키는 原動者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더 풀어 본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각각 신앙의 발생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다.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구속적 의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수동적인 의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인간의 지성에 의해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인쳐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권고가 신앙이라고 말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신앙을 어떻게 발생 시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므로 올바르게 정통적인 신앙을 따라 가면서 신앙의 체계를 세워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깨닫게 하려는 칼빈의 신앙적 노력이야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다. 칼빈처럼 하나님 중심을 내세우는 신학자가 없는 만큼 그의 신앙론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통신앙의 커다란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B. 연구 범위와 구성

본 논문은 칼빈이 소유하였던 신앙에 관한 사고들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의 중심 저서인 기독교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가 일차사료에 들어가게 된다. 기독교 강요 첫판은 1536년 3월에 출판되었다. 첫번째 나온 기독교 강요의 중심사상은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준다.

가장 훌륭한 신 페하시여! 내가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는 후에 페하게 드릴 수 있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미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의도는 다만 몇가지 기초적인 원리를 기록하여 종교에 열심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¹⁾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형기는 “복음주의의 교리적 입장을 변명(apologia pro fide sua)하려는 것과 1534년부터 1535년까지 복음주의자들을 박해했던 프란시스 1세(Francis I)에게 복음주의자들과 복음주의 신학을 변명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였다.²⁾ 여기서 칼빈이 변명하는 내용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한마디로 신앙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분명히 이것을 신앙고백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쓴 기독교강요에 대한 연구는 칼빈의 신앙관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300여 페이지 밖에 안되었던 기독교 강요 초판은 점

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종흡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1권, p. 41. 이후로는 「강요」로 한다.

2.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4), p. 263.

차 수정 증보 되면서 최종판인 1559년판의 경우 1521페이지나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최종판의 내용은 제 1권 창조주 하나님, 제 2권 구속주 하나님, 제 3권 성령, 제 4권 교회와 국가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의 신앙을 연구할 때마다 신앙에 대한 그의 확고부동한 주장을 깨달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그의 전 생애를 걸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저작된 기독교강요 뿐만 아니라 칼빈에 관한 논문 및 서적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위치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신앙의 전제를 살펴볼 것이다. 신앙의 전제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성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신앙 대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설 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신앙의 발생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게 되며, 결국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본 후, 신앙을 발생케 해 주시는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룬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신앙의 내용, 곧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의 성육하

제2장 신앙의 전제

A.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날의 많은 인간들에게는 무가치하게 느껴질 뿐이다. 합리주의 내지는 이성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지성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인간 이성으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 이성은 자신의 존재 속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인식 범위 밖에 있는 것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같은 영역 속에 있으신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보여준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하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다.¹⁾

비록 과거에서부터 그래왔고, 오늘날과 앞으로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며 필요없는 존재로 간주할 수

1.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불경한 인간들은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고 종종 표현하기도 한다. 카리 굴라(Carius Caigula)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허황되고 무례하게 경멸하는 글을 썼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징후가 보였을 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졌다. 그가 고의적으로 경멸하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떨어뜨리는 것이다.²⁾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創造하셨다. 또한 무한하신 권능으로 세상을 지속시키시고, 지혜로 다스리시며, 선하심으로 보존하신다.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와 판단으로 인류를 다스리시고, 자비로 허락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지키신다. 전 우주를 살펴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거나 하나님이 원인 아닌 지혜, 빛, 의, 능력, 정직함 또는 신실한 진리등이 있을 수 없다. 어느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조성되고 그 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본질과 속성이 있다. 본질이란 피조 세계와 직접적 관련을 가지지 않고 언제든지 신(禰) 자체 안에서 자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측면을 의미한다. 여기에 비해 속성이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지는 구체적 관계를 통하여 인간에게 계시되고 또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측면을

2. 사무엘 던 편, 「요한 칼빈의 신학 진수」 김득용 역 (서울:성광문화사, 1985). pp. 20-24.

의미한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신앙의 전제로 피조물과 구별되는 또한 타락한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살펴 보려고 한다.

산상수훈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온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귀절이 있다.³⁾ 그리고 예수의 전도 생활의 후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렀던 부분이 나온다. 대체로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의와 심판을 수행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인데 대하여,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친근감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절대화해서는 안된다. 예수 자신의 교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하나 거룩한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구약에 있어서 더 강조되고 있다. 신구약 전체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도슈"라는 말이다. 이 말의 본 뜻은 분리를 의미한다. "거룩한 자"는 다른 모든 존재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섞일 수 없다. 따라서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거리감에서 하나님을 전적타자(全的他者)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대적인 他者가 아니라

3. 마 6:9. 눅 11:2

절대적인 他者이시므로 질적 차이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 근대 자유주의 신학 이후로 하나님의 이러한 絶對他者性은 무시 당하고, 내재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여, 하나님을 내재적 존재로 부각시킨 결과는 하나님의 원재성(遠在性)을 경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상대화시켜 버렸다.

어원적으로 보면 히브리어의 “카도슈”는 어원이 분명치 않다. 학자에 따라서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라기 보다가나안어에서 온 것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이 말은 종교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종교의 대상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며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말이 구약에서 예언자들에 의하여 하나님 체험과 말씀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때, 이 말은 도덕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과 동시에 “나의 거룩한 이름”이란 표현을 발견한다(겔 36:20; 레 22:2). “거룩한”이란 말은 점점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와 관련 된 것으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사 드리는 장소(성전), 제사장, 제물까지도 거룩한 것이라고 했다.⁵⁾

4. 아모스서에서 그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아모스 4:2 참조).

5. 출 26: 33, 34; 레 20: 3; 민 18: 17; 겔 41: 4, 45: 3;

신약성서는 구약의 개념에 따라 그 말을 사용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묘사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베드로는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하면서 거룩하신 분을 본 받아 우리의 생활도 거룩해야 한다고 했다.⁶⁾ 이것은 분명히 도덕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라고 되어 있으나, 이 이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 즉 한 인격자로서의 신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같이 아버지로서의 신은 동시에 거룩한 자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를 “거룩한 자”로 묘사하기도 하며, 영을 또한 성령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신구약 성경은 그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거룩한 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세 분을 聖父, 聖子, 聖靈이라고 부르며 또한 聖三位一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성경은 거룩한 자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거룩한 자로서의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다르며 거리가 먼 곳에 계시는, 전적으로 他者로서의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자라고 할 때, 그리고 그를 絕對他者라고 할 때, 그의 본질이 모든 피조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

시 2:6; 사52:1 등.

6. 벰전 1:16; 벰후 3:11.

님을 창조주라고도 하고 절대자라고 한 데서 이미 그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절대자요, 창조주요, 또한 만주의 주가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곧 절대타자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타자라고 할 때 그를 절대자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이러한 절대 타자 앞에서 인간은 보잘것 없는 상대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매우 미약한 죄인으로서의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거룩한 하나님이 절대타자로 느껴지면 질수록 인간은 점점 더 약하게 보인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B. 인간의 죄상

1. 창조된 인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도 창조하셨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

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⁷⁾라고 하여 인간 창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칼빈은 인간을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⁸⁾ 인간 이해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해석될 때 올바른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노출된 인간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때 그의 인간 이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삼중으로 이해하고 있다. 먼저 생명이 없는 몸은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고(창2:7 a) 살아있는 움직임을 주는 영혼이 몸에 부여되며(창2:7 b) 이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는 불멸성이 관련되는 자기 자신의 형상을 부각시키셨다는 것이다.⁹⁾ 하여간 하나님께서 6일간에 걸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⁰⁾

칼빈이 인간의 창조에 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요, 둘째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먼저 흙으로부터 만

7. 창세기, 2:7.

8. 강요, 1. 1. 2.

9. 존 칼빈, 「구약성경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0), 창 2:7. 앞으로는 「칼빈주석」으로 표시함.

10. 칼빈주석, 창 1:26.

들었다는 점을 살펴보자. 왜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을까? 그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탁월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만의 기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¹¹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본성의 우월을 자랑하겠으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 오히려 “흠으로 된 이 그릇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뿐 아니라 불멸의 영이 거주하는 자리가 되게 하셨으니”¹²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그를 지으신 분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도 그 과정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하지 아니함으로써 탁월함과 위엄을 지키게 해주셨다. 다른 짐승들은 일순간에 땅으로부터 나왔지만 인간은 점진적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다.¹³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땅의 티끌에서 창조된 이상 자부심과 교만은 꺾일 수 밖에 없다. 사람이 탁월한 자연적 속성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볼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한 그는 아무 쓸모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¹⁴

11. 칼빈주석, 창 2:7; 강요, 1. 15. 1. 참조.

12. 강요, 1. 15. 1.

13. 칼빈주석, 창 2:7.

14. 윌리엄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p. 80.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익할 뿐이었다.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 속에서도 창조주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칼빈은 육체의 어느 부분에도 그 섬광이 비추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제 일차적인 좌소는 바로 영혼과 마음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 측면에서 제일 중시하고 있다.¹⁵

하나님의 형상을 칼빈은 정의하면서 형상(image)과 모양(likeness)을 주석할 때(창 1:26) 이 두 낱말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단지 “거울에 비치는 형상 혹은 일종의 영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아담은 이 형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보다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받았던 그 완전함이었다. 아담의 지성은 명료하였고, 감정은 이성애 종속되어 있으며, 그의 모든 감각들은 적당히 조절되어 있었다.¹⁶

그러나 이 완전함은 현실에 만족하기 위한 것보다 영생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신이 덕을 추구하면서 영생을 명상하도록 하였고, 인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성과 이성으로 하여금 복된 영생(immortality)을 궁극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15. 강요, 1. 15. 3.

16. Ibid.

것을 알려 주셨다.¹⁷⁾ 계속해서 칼빈은 골로새서 3장 10절의 주석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영혼의 올바르고 완전무결함이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 의, 선을 나타내는 거울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의 주석에서도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 속에서 빛나는 지혜와 의와 선으로 정의할 때, 거기에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는 위대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속에서 충만히 빛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최초의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거울이었다.¹⁸⁾

여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역동적 응답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¹⁹⁾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며, 그때 아담이 지녔던 완전성이야말로 원래 인간이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17. Ibid., 2. 1. 1.

18. Ibid., 2. 12. 6.

19. T. E. 토랜스,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한국 칼빈주의, 1965), p. 64.

형상은 인류의 타락을 통하여 상실되고 말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실제로는 이 형상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지만, 창조시의 탁월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영혼의 능력이나 기능면에서도 왜곡되고 기형적인 형태로 자연인 속에 남게 된 것이다. 타락을 통하여 비참함에 빠진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멸망하게 되었다.

2. 타락한 인간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펴 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피조물보다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칼빈은 여기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명상케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찬미하도록 만드셨다고 한다.²⁰⁾ 여기에 한가지 덧붙일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피조물로서의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²¹⁾ 이 말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영

20. F. 웬델, 「칼빈의 신학서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6), p. 185.

광을 받으시는 그 때가 되어야 창조의 올바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토렌스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봉사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주시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인간을 이끌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²¹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진실로 존경심을 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으로 나타나는데, 아담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칼빈은 인간의 근본 위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은 이와 같은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칼빈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우리의 이성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마음은 그 활동에 있어서 악하게 전도되어, 즉 우리의 성정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새로운 뜻을, 우리 마음 속에 새 의지를 창조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일 외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²²

21. 강요, 2. 1. 1.

22. 토렌스, p. 24.

23. 니이젤, p. 75에서 재인용.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소멸되었다. 물론 칼빈이 타락의 상태를 상론할 때 형상이 완전히 제거되었거나 무(無)로 된 것이 아니라고²⁴ 하였지만, 엄격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형상과 그의 본래적인 의로운 성품을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는 대신 다른 것을 좇는 인간의 반향(反向)이 일어났음을 보게 된다.²⁵ 칼빈은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아담에게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전락했으며, 따라서 전 인류의 운명은 규정되었다는 것이다.²⁶

아담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를 어거스틴은 교만으로 보았는데 반해, 칼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부터 싹텄다고 보았다. 아담이 자신의 위치 즉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켰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었건만, 그는 자기 믿음에 대한 시험으로서의 경고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아담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칼빈은 “한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²⁷ 가르친 바울처럼 죄의 근원을 불신앙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 인간

24. Ibid., p. 76.

25. 강요, 2. 2. 4.

26. 니이젤, p. 76.

27. 롬 5:19.

속에 생겨나게 되었다.

그 후로 야심과 교만이 배은망덕과 함께 생겨났으니, 아담이 받은 것 이상을 원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그 위대하고 풍성한 은혜를 파렴치하게 경멸했기 때문이다. 28

아담의 배신으로 인하여 야심이 생겨났으며 야심은 완강한 불순종의 모태가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버린 사람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뛰어들었고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다. 아담이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영적 생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창조주에게서 멀어진 것은 영혼의 죽음이 되었다. 이것은 죄의 삶이 사망(롬 6:23)이라는 성경 말씀의 보응을 가르쳐 주고 있다.

칼빈은 아담의 죄가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가게 되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원죄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의 죄인 아담의 불신앙은 곧 원죄가 되어 후손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것이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의미는 창조시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선하고 온전한 본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으므로 창조시에 부여되었던 탁월한 재능은 상실되었고 본성도 왜곡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지성과

의지에 각각 손상을 입어 본별력이나 판단능력, 수행능력등을 잃게 되어 의로움, 정직함,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등을 상실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타락은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간 것이다.²⁹ 더우기 칼빈은 원죄가 여러가지 죄의 원인임을 말하고 있다.

아담의 타락과 원죄는 후손들을 죄짓게 함으로서 아담 자신과의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고 말았다. 인간에게 창조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탁월한 재능들은 박탈당했고 영혼의 기능들은 무력해진 것이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담이 지녔던 영적 생명 즉 창조주와 연결되었던 것이 끊어짐으로서, 이제는 창조주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영혼의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일 것이다.³⁰ 그래서 이수영은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의 본질은 육체적 죽음보다도 영적 삶에 대한 갈망의 결핍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상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³¹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한 순수하고 명백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요 의지까지도 타락하여 타락 후의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의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정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29. 니이젤, p. 76.

30. 강요, 2. 1. 5.

31. 이수영, p. 91.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길은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될 수 밖에 없다. 칼빈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은 바로 진노와 저주의 자식인 것이다.

사람은 본성상 부패되었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빛과 모든 의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사람이 혼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³²

그런데 이러한 저주는 인간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다. 인간이 타락한 뒤에는 자연의 세계까지도 저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인간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저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³³ 그러므로 이러한 저주는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가운데 빠지게 하였다.

저주의 결과는 죽음이다.³⁴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이전의 상태에서 쫓겨났다. 이것은 곧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 파멸이요 상실이며 죽음과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³⁵ 그러므로 타락 후의 인간 상태는 죽음이라 불러 마땅한 것이다. 비록 죽음 자체가 아니라 할찌라도 “죽음의 입구”는 되는 것이다.³⁶

32. 강요, 2. 1. 5.

33. Ibid., 2. 6. 1.

34.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3: 10)고 하였고, 또 죄의 삶은 사망(6: 23)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35. 칼빈주석, 창 2:16.

그래서 칼빈은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의 거울”³⁷⁾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이처럼 범죄한 까닭으로 그 능력들이 맹목이 되고 무능하게 되어 결국 저주의 대상밖에 될 수 없는 인간에게 한가지 유일한 희망의 길이 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자기 밖에서 구원을 위한 수단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구원의 수단은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또 신앙의 내용 그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려고 한다.

36. Ibid.

37. Ibid., 19:13.

제3장 신앙의 발생

A. 종교의 씨앗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중요한 목적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존재를 정당화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완전한 지혜의 대요”가 되는 것이다¹⁾ 또한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제네바 교회의 신앙 문답집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제 1문에서는 인생의 주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고 했으며, 제 3문에서는 인간의 최고 행복을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의 전 신학을 체계화하는 중요 개념이다.

칼빈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강요의 첫머리에서부터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두 종류, 즉 신지식과 인간 자신에 관한 지식이라고 강조한다. 이 두 지식은 여러 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쪽이 먼저인가, 혹은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 내는 가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²⁾ 하

1. "The Knowledge of God", Calvin : Commentaries on Jer. 9:23-24. L.C.C. Vol.23, p.125.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78). p. 77 에서 재인용.

2. 강요, 1. 1. 1.

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을 먼저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타고난 본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운명을 주셨다. 즉 본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는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비문명권이나 시대에 뒤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요구는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생활을 바쳐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반드시 자신의 증거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된다.³⁾

칼빈은 이교도 시세로(Cicero)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미개한 국민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

3. Ibid., 1. 3. 1.

이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세계의 구조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며 매일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이 눈을 뜨는 한 하나님을 동시에 인식치 않고는 안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세계가 존재하던 날부터 종교없이 지낼 수 있었던 나라나 민족은 없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다.⁴⁾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후에도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통해 자연적인 선물들을 남겨 놓으셨다. 지상생활을 발전시켜 나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찬미하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부여 주셨던 종교의 씨를 타락 후에도 그대로 두셨기 때문이다.

그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결코 근절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신성에 대한 어떤 관념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씨앗은 매우 부패하였기 때문에,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다.⁵⁾

모든 사람 속에 종교의 씨앗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씨앗을 소중히 키우는 사람은 드물다. 더욱이 무르익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이 종교의 씨앗을 이용하여 오히려 미신에 사로잡혀 있으며 우

4. Ibid., 2. 3. 1.

5. Ibid., 1. 4. 4. 칼빈이 종교의 씨앗, 지식의 불꽃, 빛의 일부분이라느 말을 사용했지만 그가사용했을 때의 엄밀한 의미를 따져본다면 소극적인 형태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상도 찾게 된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을 임의대로 좋아하며 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아는 참 종교가 아니요 일그러진 모습의 종교적 씨앗 일부분이다. 어쨌든 종교의 씨앗이 남아 있으므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식하거나 종교적 감정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아울러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 능력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양심은 종교의 씨앗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영구히 무감각한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내면적으로 증언하며, 경고하며, 선악의 구별을 우리에게 보이며, 우리의 의무 태만을 비난한다”⁶⁾

양심의 기능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들을 인도하는 능력이라고 칼빈은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의 씨앗이나 양심을 갖고서 자기의 현 수준 이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 불구하고 인간은 오히려 자신의 육적인 어리석음을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판단하기가 일쑤다. 그래서 공허한 사색의 길로 달리며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여 우상 숭배를 따

6. Ibid., 2. 2. 12.

르는 것이다.⁷⁾ 그러므로 이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

B.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이 종교의 씨앗을 통하여 누구든지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을 수는 있게 된다. 종교성은 인간 영혼의 내부에 자리 잡고있는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와 같은 종교성이 미신의 역사속에 나타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종교성은 태양과 별들같은 우상숭배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우상조각 숭배로 발전하며, 더 나아가서는 야심을 지닌 인간이 스스로 장식하고 신성시하여 인간 예배를 고안해 내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미신의 역사야말로 종교성의 발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결과라고 칼빈은 보았다.⁸⁾

7. Ibid., 2. 4. 2.

8. Ibid., 1. 12. 3.

그러므로 인간 속에 있는 씨앗을 통한 종교적 능력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게 되어있다. 진정한 신앙은 이와같은 종교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통하여 혹은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줄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간 자신의 내부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없으며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을 일으켜주는 발생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다.

하나님만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지식을 주신다.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은 신앙 발생의 주체자이시며 동시에 신앙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 내용은 신앙의 근원차를 보여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내용이 된다는 말이다. 죄악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났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귀절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 모든 신앙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 믿음은 주권적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성

령 안에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다.⁹⁾ 칼빈의 설명을 통해서 본다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역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확실한 사실은 신앙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¹⁰⁾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 속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의미한다. 신앙의 발생은 이와같은 죄성 속에서 괴로워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여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죄악 속에 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비롯해서, 애굽의 신음하는 백성들의 부역장면을 보시며 한탄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¹¹⁾ 고 하였다. 또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다.

9. Ibid., 3. 2. 7.

10. 토랜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신본주의 사상이 칼빈 신학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위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절대섭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통치등을 칼빈주의자들의 신학적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 토랜스, p. 84.

11. 렘 1:5.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공휼을 베풀어 주시사 죄악 속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의지를 깨닫는 것이다. 신앙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확고하고 확실한 인식이다. 신앙을 발생케 하는 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해야만 한다.

C.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앙을 소유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한하시며 영적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해 준다고 할찌라도 인간들은 이성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칼빈은 “우리가 보는 것과 또 보지 못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세네카(Seneca)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² 칼빈은 여기에 대하여 계속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입, 귀, 눈, 손, 발같은 것들을 지니신 분으로 묘사한다고 할찌라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12. Seneca, Natural Questions, 서언. 강요, 1. 13. 1.에서 재인용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미약한 수용 능력에 적응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³⁾ 더 나아가서 칼빈에 의하면 인간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위엄의 자리로부터 훨씬 밑으로 내려와야만 되었다고 설명을 한다.¹⁴⁾

칼빈은 문예부흥 시기의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인 인간에게서 출발하여 인간을 재인식한다는 사상을 거부하였고 오직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근삼은 칼빈의 이러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교통이 단절되었다. 그리하여 사람편에서 하나님에게로 향한 길은 전혀 없다.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는 없다. 하나님만이 그의 피조물에게 하나님 자신을 전달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을 영원하신 말씀(Logos)이신 독생자를 인간들에게 보내심으로 행사하신다¹⁵⁾

인간을 전적부패, 전적무능의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

13. 강요, 1. 13. 1.

14. Ibid.

15.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6), p. 117

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칼빈은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고서는 안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인류는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말았으며, 인간의 탁월성과 고귀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 버렸고, 도리어 우리에게 한층 더 큰 치욕이 되어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위격을 가지고 우리의 구속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버지로 나타난다.¹⁶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은 그의 보좌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다. 이 땅위에 사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강림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성육신 사건(incarnation)은 이같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강림사건으로 나타나서 그 어느 종교에서도 없는 새로운 구원의 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면 사건이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¹⁷ 성육신 사건은

16. 강요, 2. 6. 4.

17. 칼빈은 성경의 효용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하여,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강요, 1. 9. 1.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시해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표적 죽음과 부활까지도 예표로써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서 인간이 신앙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비하(自己卑下)이셨다. 만약에 이같은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의 구원은 도저히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하신 겸손의 모습이야말로 인간에게 신앙을 발생케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비와 믿는자들의 도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굽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¹⁸

18. 빌 2:5-11.

여기서 신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부응하는 인간의 응답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총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면서 인간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¹⁹⁾ 칼빈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시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 때문이다. 특별히 칼빈은 중보자라는 즉 구속주라는 칭호를 강조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양편 관계에 대한 만족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참 하나님이어야 하며 동시에 참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결국 이와같은 주장은 기독교강요에서 나타내 주는 신앙 발생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과 그의 사역에 따라 인간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내려 오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죄악의 비참한 상황 속에 있던 인간을 위로 끌어 올리는

19.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업적에 대한 토론은 여러 교리 중의 하나가 아니라 그의 신학적 사교의 자세를 보여 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기독교 강요의 모든 페이지에 인증된 수많은 성경 귀절들은 그리스도 중심주의와 일치한다. 칼빈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크게 부각되는 사상으로서는 루터만큼 명료하게 되어있다. 전경련,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한신대학 출판부, 1984), p.126.

20. 강요, 2. 11. 1.

역할을 하신 것이다.²¹⁾

앞에서 이미 인간 속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할찌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살펴 보았다. 칼빈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완전히 굳은 믿음을 가진 분이 중보자로서 사이에 있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사라지며,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너무도 숭엄하고 높으시기 때문에 땅에서 기어다니는 구더기와 같은 죽을 인생으로서 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고 하였다.²²⁾ 그리스도야말로 신앙을 발생케 하는 원동자(原動者)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교양이 높은 성인군자라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표시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을 구한다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은 “그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르친다(고전 1:30). 우리가 성령의 다른 은사를 구한다면 그것은 그가 기름부음을 받으신 데서 발견될 것이다. 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주권에 있으며, 순결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잉태에 있으며, 온유함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탄생에서 나타난다. 그는 탄생하심으로써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히 2:17), 우리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셨다(참조, 히 5:2). 우리

21. Ibid., 2. 12. 2.

22. Ibid., 2. 6. 4.

가 구하는 것이 구속이라면 그것은 그의 수난에 있으며, 무죄 방면이라면 그것은 그의 십자가에 있으며(갈 3:13), 배상을 치르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희생에 있으며, 정결이라면 그것은 그의 피에 있으며, 화해라면 그것은 그의 지옥 강하에 있으며, 육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무덤에 있으며, 새로운 생명이라면 그것은 그의 부활에 있으며, 영생불사라면 그것도 그의 부활에 있으며, 천국을 상속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승천에 있으며, 보호나 안전이나 모든 풍부한 축복이라면 그것들은 그의 나라에 있으며, 안심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받은 심판권에 있다.²³

칼빈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중심하며 그에게 속해 있는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또한 신앙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글이다. 이 부분의 내용은 분명히 신앙 발생이 그리스도이시며, 인간 스스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같은 내용을 통해서 칼빈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중심주의적 사상은 신앙발생이 오직 구속주에게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3. Ibid., 2. 16. 19.

D. 말씀의 사역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을 발생케 하는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삼위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신앙을 발생시켜주며 유지시켜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 진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죽은 문자 혹은 죽이는 문자라고 할때 칼빈은 이들을 과감하게 비평하였던 것이다.²⁴⁾

성경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을 깨닫게 해준다. 성경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제멋대로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시해 주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만이 신앙의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과 성령의 사역은 밀접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칼빈의 다음과 같은 말은 성경과 성령의 공존적 증거 활동을 보여준다.

기록된 성경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의 성령의 은밀한 역사와

24. Ibid., 1. 9. 1. 칼빈은 이들을 자유사상가(libertine)이라고 하였다.

내적 증거가 없이는 능력이나 설득력을 가진 것이 아니며, 말씀없는 성령은 사실 성령이 아니다. 계시가 성령과 경쟁하거나 성경의 중심성에서 추출되는 곳에 그리스도가 쫓겨나게 된다.²⁵

이러한 칼빈의 주장이야말로 성령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지키는 영원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위에 참된 삶을 살도록 후원해 주고 인도해 주며, 동시에 풍성한 삶을 제공하려고 하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계시 행위으로써 성경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계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의 계시와 연결된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서로 관련된 두 국면을 지니는데, 하나는 외적 계시와 또 하나는 내적 계시이다. 인간은 이성의 눈땀과 마음의 부패 밖에 없기 때문에 내적 계시인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외적계시인 성경을 바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칼빈은 말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성령에 조명되기까지는 우리의 정신이 의심과 불안 속에 떠다닐 뿐이다.²⁶ 그러기에 육체가 성령에 의해 조명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그에 관한 것을 이해하는 그 높은 슬기를 도저히 감

25. Ibid., 1. 6. 1.

26. Ibid., 1. 7. 4.

당할 수 없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에 의해 조명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인자하심의 큰 보화들을 깨달으며, 성령의 빛 없이는 우리의 이성은 너무 눈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모든 느낌이 없어서 영적인 일들에 관하여 아무런 냄새도 맡을 수 없다.²⁷⁾

칼빈은 계속적으로 말씀이 신앙을 일으키는 것을 강조하여 외적계시인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와 같다고 칼빈은 보았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선언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지만 영적 소경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가 자연적 소경들이기에 내적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조명으로 접근케 하시지 않고서는 말씀이 우리의 영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²⁸⁾ 그러므로 말씀이 계시로 받아 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시작하신 역사를 성령으로 확증하심으로 완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실현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역사는 이처럼 성령의 능력과 작용에 의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이며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 성경만이 정통적이고 올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2:18절에는 성경의 일점일획도 가감하지 말

27. Ibid., 4. 14. 8.

28. Ibid., 3. 2. 3,4.

라고 하였다.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소유하여 하나님인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올바르게 파악해야만 한다. 칼빈에게서 말씀은 모든 성도의 신앙을 계도해주는 밝은 빛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E. 성령의 사역

이 부분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발생을 가능케 하시는 역할이 있으신가를 살펴보고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곳곳에서 성령 사역을 종종 논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교회론 부분이나 성도의 신앙생활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성령사역 부분은 제 3권 전체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의 생애 중에서 당시의 반대자 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에게서까지도 가장 가혹한 처사라고 판단받는 사건은 세르베투스(Servetus)의 처형 사건인데,²⁹⁾ 그는 반

29. 세르베투스(Servetus)는 1553년 10월 27일 제네바 샴펠(Chapel) 언덕에서 화형 당했다. 그는 삼위일체를 끝까지 반대

삼위일체의 신앙을 소유했던 까닭이었다. 세르베투스도 삼위일체를 매우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고 따라서 모든 삼위일체 신자는 무신론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칼빈은 삼위일체를 더욱 강조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그 근본으로부터 뒤집어엎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성자와 성령의 신적 본질에 관하여, 부분적으로는 위(位)의 구별에 대하여 언제나 커다란 분쟁을 선동하여 왔다. 사단은 거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불경한 정신의 소유자들을 선동하여 이 문제로 정통주의적 교사들을 괴롭혀 왔으며, 오늘날까지 그 타다 남은 불로 새로운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³⁰

칼빈은 이처럼 반 삼위주의자들을 크게 공박하였다. 어쨌든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치중하였지만 동시에 성령 사역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이처럼 성령이 신앙을 발생케 하는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성령의 사역을 성경 속의 계시에 한(限)한다고 하

하였고, 칼빈은 가급적이면 삼위일체의 신앙을 유도해냄으로써 살려 주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처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훗날의 제네바 시민들은 1903년 10월 27일 그 언덕위에 추모비를 세웠다. 이종성, 「칼빈」(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출판사, 1982), pp. 56f.

30. 강요, 1. 13. 21.

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상들은 엄격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은 성경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다.³¹⁾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신앙을 발생케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 주신다.³²⁾ 인간이 누구나 육적 성품 속에서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뿐이다. 그에게서 떠나 있는 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속죄 사업을 하셨다 해도 그 모든 사역이 유익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³³⁾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단지 허공을 때리는 사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람의 성품을 입으사 인간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을 당신 자신이 여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를 “우리의 머리”(엡 4:15) 또는 “많은 형제중의 맏아들”(롬 8:29)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그에게 접붙임이 되었고”(롬 11:17)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갈 3:37)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1. Ibid., 1. 9. 1.

32. Ibid., 3. 1. 1.

33. Ibid.

우리가 그 안에서 한몸이 되어 자라지 않는 한 그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은사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에게 묶어 주신다. 예수께서 내가 갈찌라도 성령이신 보혜사가 오시사(요 14:25-26) 같 길을 보여 주신다고 말한 사실은 지속적인 성령 사역을 예시해 주는 것이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희생을 통해 믿음을 지속시키게 해준다. 즉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신자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다.³⁴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는 사실을 성령은 증거하고 있다(요1서 5:6-7). 이말은 신자의 삶 속에서 구원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증거하고 계시다는 뜻인 것이다. 성령은 삼위 중에서도 한 위격에 속하시지만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고 계시고, 땅에도 물과 피와 성령 세 분이 계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다(요 1서 5:7-8). 성령은 하늘과 땅 양 편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죄를 정결케 해줌과 희생의 능력을 계속 간직하게 해준다는 의미이다.³⁵

베드로는 이와같은 성령의 사역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즉 신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34. Ibid.

35. Ibid.

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벵전 1:2).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 씻음을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다. 이 대속적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효과를 우리 영혼이 계속 받고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비밀리에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다. 바울도 정죄케 함과 의롭게 함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고전 6:11).

결국 성령은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결합시켜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신다. 또한 그 은혜가 계속 내 것으로 지속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은혜와 의롭게 해 주시는 은혜를 지속시키시고 계신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신앙을 발생케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신앙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수행하고 계신 것이다.

제4장 신앙의 내용-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신앙은 여러 대상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 믿음도 하나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는 말씀 등은 신앙의 대상이 한분 이심을 분명히 해준다. 창조, 타락, 구원, 종말, 부활등이 각각 신앙의 조항이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각각의 일들이다. 이 모든 내용은 그의 존엄하시고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말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확증을 따라 이 은총에 의지하는 신앙이다.¹⁾ 칼빈은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라고 했다.²⁾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할 수 있겠다.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1. 한철하,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성경과신학』 1990년 1월호, p. 15.

2. 강요, 3. 2. 7.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바가 된다.³⁾

칼빈은 이렇게 함으로써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에 대한 대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래서 신앙은 한 분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⁴⁾ 이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한다. 이같은 칼빈의 주장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이 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렇게 볼 때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에게 신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본장에서는 신앙의 내용이요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성육하신 의의와 그가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A. 성육하신 그리스도

칼빈은 처음 사람이 타락한 그 후로부터는 중보자 없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다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⁵⁾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3. Ibid.

4. Ibid., 3. 2. 1.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은 결국 성육하여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멀어졌으므로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범죄로 벌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이어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⁶⁾

성육신은 칼빈에게 있어서 대속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기독교강요 2권 12장 제목자체가 “중보자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야 했다”는 그의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그는 오시안더(Osiander)의 “설사 인간의 구속을 위한 아무런 방편도 필요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성경의 증거를 넘어선 쓸데없는 사변이라고 논박했다.⁷⁾ 이것은 성육신이 대속적 구속을 전제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 육체로 옷 입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 주고 있다.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5. Ibid., 2. 6. 1.

6. Ibid., 2. 6. 4.

7. Ibid., 2. 12. 4. 여기서 칼빈은 오시안더가 그의 논문 *Anfilius Dei incarnandus*(1550)에서 제시한 주장들을 인용하고 있다.

과연 믿음은 그리스도의 본질만을 붙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직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⁸⁾

이렇게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나 구원의 내용을 결코 말할 수 없다고 강조된다. 칼빈은 강요 2권 14장에서 그리스도의 이성(duality)을 취급하였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들어 있으면서도 하나로 있다(unity)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두 본성은 혼합이 아닌 인격의 통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된 것을 의미한다.⁹⁾ 두 본성은 각자의 본성을 원래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로 되어 역사하는 것이다. 두 본성이 한 그리스도를 형성한다는 사실의 주장은 칼빈이야말로 철저히 칼케돈 신조의 그리스도론을 따르는 정통 신앙자임을 보여 준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는 성경말씀과¹⁰⁾

8. 칼빈주석, 요 1: 49.

9. 이종성,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p. 405.

10. 신성에 관한성구, 요1:1, 5:17, 17:5; 골 1:15; 빌 2:6-11등, 인성에 대한 성구, 사 42:1; 눅 2:52; 막 13:32;

칼빈의 주장 등을 통하여 볼 때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분이심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칼빈은 그리스도론이 시작되는 강요 제 2권 제 12장 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한 문제로 되어 왔다.”¹¹⁾ 이것은 고대교회의 정통신앙 고백에 따라 그리스도는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심을 재진술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므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보다 더 낮고 더 우수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므로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¹²⁾ 계속해서 칼빈의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분이 자신을 조상들에게 나타내실 때마다 그리스도는 그분과 그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셨던 것

요11:38; 빌 2:6-11 등.

11. 강요, 2. 12. 1.

12. 칼빈주석, 요 8:18.

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에 하나님의 역을 맡으실 뿐 아니라 바로 그 분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인 것이다.¹³

인간은 치명적 타락으로 죽음과 지옥에 떨어졌고, 무수한 오점과 부패로 더럽혔으며, 모든 허물에 압도되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인 구름같이 우리를 천국에서 완전히 격리해 버렸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중보자로 오셔야만 되었다. 성육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진다. 칼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이 되셨을 때 그리스도는 그가 전에 가졌던 본체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본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짧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계속 영원한 말씀이 되시는 방법으로 인간이 되셨던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죄성을 지닌 인간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만나는 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육하신 그리스도는 신적인 속성의 어느 것도 빼앗기지 않으신 상태로 하나님께만 속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 이 세계와 공중의 모든 주권

13. 칼빈주석, 창 18: 13.

14. 칼빈주석, 요 1: 14.

을 파괴하고 회복하는 것은 그분의 권한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이 세계와 공중 위에 있는 힘이며, 생명의 주권과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죄인들을 구속하기 원하셔서 스스로 그의 독생자의 위격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으니¹⁵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자기비하이신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고때문에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찢리고,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대신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 우리가 양같이 그릇행할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셨다.¹⁶

하나님은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스스로의 일을 수행해 나가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호칭과 이름을 가지며, 하나님의 속성들을 발휘하면서 일들을 하시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이 그리스도에 돌려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신성은 인간에 대한 구속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 요건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15. 강요, 2. 12. 2.

16. 이사야 53:4-6.

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은 그의 참된 신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요하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인간의 육체를 똑같이 지녔다고 주장 하면서도 보통의 인간보다는 신적 성품이 들어 있다고 은연 중에 더 강조 되었었다.¹⁷

칼빈은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참으로 인간적인 씨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육적 아버지로부터 직접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성은 성령에 의해 마리아에게 잉태 되었고 그 근원은 아담으로부터 기인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거해 준다. 구약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으며 신약을 통하여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입증해 준다. 특별히 다음 귀절은 사도 바울을 통한 중보자의 성격을 특징지워 준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¹⁸

17. 오늘날의 현대 이단들은 여기에 비하여 볼때,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지극히 강조하면서 은근히 신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바로 이 분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원수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화목의 회복을 중보해 주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씨로서 탄생했고 (창 12:3, 17:2,7, 18:18), 육체를 입고 나셨을 때 그를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불렀다(마 1:1)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한사람으로 나신 분명한 사람이었고 진정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써 연약성을 들고 있다. 복음서에서 인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무화과 나무아래서 그는 실제로 허기를 느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실제로 갈증을 느꼈다. 또 피곤해서 지치기도 하였고 눈물을 흘리시며 통분히 여기시기도 하였다.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모든 감성을 그대로 느끼고 계셨음을 알게 된다.

그가 신인의 한 인격이었지만 그의 인성에 신성 특유의 어떤 것이 덧입혀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의 신으로서의 능력을 없는 것처럼 감추셨다.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실 때 자신의 신성은 휴지(休止) 상태에 있었다(*quiescente divinitate*)고 보는 이레네우스의 말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 뿐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슬픔에까지 적용하고

싶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까?”하며 아픔을 호소하는 그의 절규에서 입을 수 있는 그
 대로이다.¹⁹⁾

지금까지 본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연구해
 오면서 왜 신인 양성을 가지셨어야만 하는가를 살폈다. 신앙의
 내용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실 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참 사람이시면서 죄없으신 분이랴 인간편에서 하나
 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인 양성을
 가지셔야만 한다고 칼빈이 주장한 것²⁰⁾을 우리의 신앙으로 간직
 해야 한다.

19. 「칼빈성경주석 누가복음」 2:40. 주석.

20. 강요, 2. 12. 1, 2, 3.

B.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

칼빈은 중보자의 구속 활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의 여섯 가지 주제를 사용하였다.²¹⁾ 그러나 이제부터 세가지 주제만을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중요시하여 다루려고 한다. 왜냐하면 둘째 아담의 주제는 인류의 대표성에 관련된 문제이고, 승리자의 주제는 우리가 다시 죄와 사망의 범주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화목제물의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시는 중보자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이다. 바울은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을 산영으로, 그리고 마지막이시며 둘째이신 아담을 살려주는 영으로 표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보았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자를 보게 된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부른 이유에 대하여 칼빈은 인류가 첫 사람에서 회복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21. 칼빈은 순종한 둘째 아담, 승리자로서의 그리스도, 법적 대리자로서의 그리스도, 희생 제물로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공로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등의 여섯가지 주제로써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세가지 주제속에 다른 세 주제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술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첫 사람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모두에게 주시려는 것을 첫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며, 그래서 온 인류의 상태는 그 한 사람의 인성에 의하여 결정이 된 것이다. 그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자신은 물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신과 함께 그들 모두를 동시에 불행으로 끌어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파멸적인 타락에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시려고 오셨으며, 또한 그것을 더 좋은 상태로 끌어올리셨다. 그러므로 아담과 그리스도는 인류의 두 기원이고 뿌리이다. 이것이 바로 아담을 '첫사람'이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마지막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모든 칭의가 있게 되는 이유이다.²²

이렇게 볼 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종족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류의 두 뿌리라 볼 수 있다. 첫째 아담이 죄에 빠짐으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영적, 육적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여기에 비하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의, 은혜, 생명을 자기 백성에게 가져다 주었다.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 개념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재강조하는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들을 멸망에서 구출하도록 그의 인간 상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싶다"²³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누가까지도 그의

22. 칼빈주석, 고전 15:45.

죽보 속에 그리스도를 아담의 후손이라 한 것을 예를 들면서 둘째 아담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참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의 인격과 이를 취하신 것은 첫째 아담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다.²³⁾

그러면 어떻게 두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첫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멸망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칼빈은 첫번째 아담과 반대되는 복종의 행위를 들고 있다. 두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의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둘째 조건이 있었다. 즉, 불복종으로 멸망한 사람의 시정책(是正策)으로서 불복종을 복종으로 상쇄하며,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행하며,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는 참 사람으로 나타나시며 아담의 몸과 이름을 취하셔서 아담 대신에 아버지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로 이행하는 값으로써 우리의 육신을 바치시며, 같은 육신으로 우리가 받을 벌을 받으셨다.²⁴⁾

첫번째 아담은 타락으로 인하여 자신 뿐 만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후손들을 멸망시켰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모두를

23. 강요, 2. 12. 7.

24. Ibid., 2. 12. 3.

25. Ibid.

불행으로 끌어 넣었기 때문이다.²⁶ 그리하여 아담 아래에서 죄인된 인간에게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회복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칼빈은 두번째 아담론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두번째 아담이라 부름으로써 사람의 처음 창조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회복 사이에 둔다”²⁷고 하였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는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지적하고 있다. 후사라는 이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 만들어져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옷입음으로써 자신을 통하여 후사로서의 신분을 보이셨고 또한 인류가 아담에 속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게 된 까닭이다.²⁸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날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런데 더욱 특이한 것은 우리의 회복이 이전 상태보다 더 나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생명보다 더 좋고 또 고귀한 생명으로 중생시키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는 성령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두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21절에서 잘 보여주는데, 칼빈은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6. 칼빈주석, 고전 15:45.

27. 강요, 2. 12. 7.

28. 칼빈주석, 히 1:12.

본문 전체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능가하시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그리스도의 의에 압도된다는 것이다. 아담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타도되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담에게서 온 사망을 삼켜 버린다.²⁹⁾

칼빈은 그리스도의 전체 지상 생활이 하나님께 순종한 구속 사건이라고 보았다. 그리스도는 순종의 전 과정에 의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분리를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게 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은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삶이었다(빌2:8).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절정인 것이다.

칼빈은 특히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발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마지 못해서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에게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로써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사실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마 26: 53) 하는 말씀이나 그리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 42) 하는 귀절 등은 그리스도의 자발성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자발적인 순종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

29. 칼빈주석, 롬 5:17.

음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그가 불순종의 죄값을 갚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신앙의 내용이다.

C.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생명을 잃어 버리고 죽음에 내던져지게 되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인간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비참한 상태를 극복할 힘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다. 인간은 언제나 죄의 노예로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면서 사망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길 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다.³⁰⁾ 이레네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를 “그가 죄를 진멸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므로 예수

30. 롬 5:8.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한 사역이라고 했다.³¹⁾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결박하고 죄와 죽음에 굴복당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인류를 노예로 삼고 있는 세력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다.³²⁾ 이와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승리하셨는가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해보자. 인류를 대적하고 있는 강한 적들은 사탄과 그들의 사역인 죄 및 인간에게 적용되는 죄의 결과로써의 죽음등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칼빈의 주장을 살펴본다면 마귀의 주된 목표가 죄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탄에게는 불신자들을 눈 멀게 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으며,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서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³³⁾ 또 다른 적인 죽음은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살아있는 일생동안에 그에게 매여 종

31. G. 아울렌, 「속죄론 연구 - 승리자 그리스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p. 21.

32. 고전 15:55-57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33. 칼빈주석, 고후 4:4.

노릇하게 된다.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생각하는 모든 자들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몹시 두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죽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의 저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생을 통하여 계속되는 저 죽음의 노예 상태나, 또는 비참한 영혼들이 울부짖는 끝없는 고뇌의 불안이 바로 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³⁴⁾

죄가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대적이라는 개념을 칼빈은 에베소서 주석에서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인간사이를 단절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³⁵⁾ 이와같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네번째 대적인데, 세상에 대한 칼빈의 견해가 요한일서 주석에 밝혀져 있다. 세상은 “모든 종류의 부패가 깃들여 있는 곳이며”, 또한 악의 심연과 같아서 “그곳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힐 수 밖에 없는 환락과 기쁨과 유혹이 가득찬 곳”이다.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에 도취되면 하나님과 자신을 잇을 수 밖에 없다.³⁶⁾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34. 칼빈주석, 히 2:15.

35. 칼빈주석, 엡 2:1.

려고 하는 대단히 강한 대적이다.

지금까지 인간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보았다. 사탄, 죄, 죽음, 이 세상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은 비참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상황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인간이 처한 절망적 상태를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만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공로로써 사탄, 죄,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³⁶⁾ 그리고 이 십자가의 승리는 인간의 모든 저주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죄가 말끔히 씻겨지는 표시였다. 또한 구원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셨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며, 아울러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 되심이 그의 신성을 크게 나타낸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을 괴롭히는 적들은 사람의 힘으로 정복하기에 너무나 강하였다. 이러한 적들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셔야 했다. 이 일을 위해서 성육하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셔야만 했다.

36. 칼빈주석, 요일. 2:15.

37. 칼빈주석, 요 13:31.

똑같은 이유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분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의 임무는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생명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임무는 죄를 정복하는 것이었다. 의(義) 자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임무는 세상과 공중의 권세들을 괴멸시키는 것이었다. 세상과 공중보다 더 높은 권능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생명이나 의나 하늘 주권과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고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로 정하셨을 때에,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³⁸

이처럼 신자의 적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칼빈은 계속해서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강대한, 또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는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의 싸움이 마귀나, 사망인, 죄등(엡6:12) 실로 능력 있고 강한대적들이기 때문이다”³⁹ 라고 하였다. 이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와 주장은 인간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고 칼빈은 보았던 것이다.

이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람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참 인간이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함께 이기심으로써 그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다.⁴⁰ 그리스도의 인

38. 강요, 2. 12. 2.

39. 칼빈주석, 사 9:6.

성과 구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칼빈은 그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 했을까? 그는 죽음 속에 하나님의 저주를 보았기 때문이며, 인간 죄악의 모든 형벌을 대항하고 그 어둠 자체의 권세를 대항해 싸우기가 그만큼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고 불안에 빠졌던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가 원하는 승리를 얻었다. 그는 정복자로서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에 의하여 떠받쳐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단과 죄와 음부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운 후에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신 것이다.⁴⁰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이 악마를 이기리라고 선언하신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⁴¹ 그리고 칼빈은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그의 승리가 신자들의 것이 됨을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위탁한 것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신실한 자들의 영혼을 한 무더기로 보아 자기 영혼과 함께 안전하게 보전하려는 뜻이다”⁴²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

40. 강요, 2. 12. 3.

41. 칼빈주석, 히 5:7.

42. 강요, 2. 13. 2.

인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그의 인성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 아니시면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고난에서 승리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승리로써 삼켜져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 되심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가 스스로 저주를 취함으로써 모든 저주의 힘을 산산히 부숴버린 사건이다.⁴³⁾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 가셨다는 것은, 십자가 상에서와 그리스도의 영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였다. 이러한 영적인 고통도 승리라는 의미로 기독교강요에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정복하고 개선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왕이 삼켜 버리신 그 일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었다.⁴⁴⁾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부활 사건이다. 십자가에서의 그의 승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되었

43. 칼빈주석, 마 27:50.

44. 강요, 2. 16. 6.

45. Ibid., 2. 16. 11.

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바울을 인용하여 “그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 되었으며, 그의 부활에 의해서 의가 회복되며 생명이 소생했다”고 한다.⁴⁶ 또한 부활의 덕택으로 그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그 권능과 효력을 나타낸다고 했다. 마태복음 주석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영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며, 또한 자신을 하나님이 아들됨을 증명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session)하심을 승리의 의미로 보았다.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 잡힌자를 사로 잡으며 (엡 4:8) 원수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만드셨다.⁴⁷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매일 영적 보화를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도록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과 인간 구원에 반대하여 날뛰는 원수들을 그의 강한 손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재림 주로 오실때에 그리스도는 최후의 처리를 완수 하실 것이다.⁴⁸

46. Ibid.

47. Ibid., 2. 16. 16.

48. Ibid.

이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마귀와 죽음과 죄와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다.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D.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는 신앙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며, 희생의 제물로서 하나님을 향한 측면에서는 화해를 이루시고, 인간의 측면에서는 구속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살피게 된다.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창시자는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기 백성을 위한 은혜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신앙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1.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 속에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율법을 어긴 자들이 받아야 할 정죄를 그의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에 대한 만족을 이루신 것이다. 율법과 구원과 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주께서 약속하신대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만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율법의 준수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우리는 생명의 약속들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단지 저주 아래에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칼빈은 율법의 완성인 구원과 그 반대인 저주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⁴⁹

인간은 죄인인 까닭에 율법을 지킨 그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다만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 이는 율법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는 율법을 대신 지켜줄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가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이것은 그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충분하고 견고한 토대를 얻으며,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탈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누구든지 자기 속에 내려가서 자기의 진상을 성실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의를 느낄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노역을 푸는 방법과 수단을 애써 찾아야 하며, 여기에는 충분한 배상이 요구된다. 죄인의

49. 강요, 2. 7. 3.

죄책에서 사면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항상 그들 위에 있는 것이니, 필요한 것은 평범한 보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므로 자기의 법을 어기는 자를 벌 없이 버려 두시지 않고, 처벌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⁵⁰

칼빈은 여기서 예수가 자기 백성의 대리자로서 율법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 지켰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이미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위하여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세례시에 하신 말씀 즉 “우리가 이와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는 말씀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의라는 말이 자주 율법의 준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했다.⁵¹ 또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도 율법의 요구를 엄밀히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⁵²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은 백성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진술을 아래와같이 하고 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할 아무 의무도 없으시지만, 사도의 말에 의하면, 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 내기 위하여 율법의 굴레에 스스로 종속시

50. Ibid., 2. 16. 1.

51. 칼빈주석, 마 3:15.

52. 칼빈주석, 요 2:13.

키신 것이다.⁵³

그리스도께서 대리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정죄 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정죄한 것은 세번이나 네번정도 그리스도를 석방하려고 시도한 이후였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정죄 당하신 것이지, 자기 자신 때문에 정죄 당하시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칼빈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이 그의 정죄 당함에 대한 대리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모든 저주를 인간에게서 그에게로 옮겨가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내신 것이다. 칼빈은 겹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의 고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떠나 간다는, 죽음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재판장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다. 그에게 지워진 우리의 죄악들이 그 막대한 무게로 그를 짓눌렀던 것이다.⁵⁴

이와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의롭게 타오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이 되었다.⁵⁵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53. 칼빈주석, 갈 4:5.

54. 칼빈주석, 마 26:37.

55. 칼빈주석, 사 53:5.

내리셨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므로 인간의 죽음 문제는 해결함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므로 말미암아 칭의의 근거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고 칼빈은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그가 뒤에 진술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만족시킴으로써 우리를 위한 의를 조달해 주셨다고 추리한다. 여기서 추론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는 하나의 속성으로 존재하지만, 원래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던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impute)된다는 것이다.⁵⁶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정죄를 담당하셨다. 칼빈은 강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악자와 죄인을 대표한 인간을 본다”⁵⁷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⁵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명의로 범법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여김을 받을 때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이와같이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이

56. 칼빈주석, 롬 5:19.

57. 강요, 2. 16. 5.

58. Ibid.

져야 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 것은 그의 생애 속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므로 대신 형벌을 받은 대리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인이 받아할 정죄를 대신 당하심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하셨다.

2.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셨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속하였고, 범죄한 사람은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희생 제물이셨다. 칼빈은 이와같은 희생 제물에 대한 구약적 근거를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주석에서 강조하였다.

이 유추에 의하여 그가 의미하는 것은, 비록 그가 특별히 유월절 양을 암시하고 있긴 하지만, 고대의 희생제사가 그 전조로 보여 주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것을 그리스도께 적용시킴으로써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완전했고 아무 흠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합당한 제물이었음을 가르치고 있다. 만약 그가 자기 속에 조금이라도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정당하게 드러질 수 없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노를 누구러 뜨리지도 못했을 것이다.⁵⁹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적 성취로써 나타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요1:29)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를 위한 위대하고 최종적인 희생이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밝힌다. 율법 하에서 유대인들이 드리곤 했던 모든 희생제물들은 죄를 속할 힘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그리스도안에 계시된 실체의 상징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⁶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모든 구약적 화목제사를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칼빈은 하나님을 향한 측면과 사람을 향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와 같이 이중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칼빈은 “그는 자신이 우리에게서 받은 육체를 제물로 드렸는데, 이는 그 자신의 보상행위에 의하여 우리의 죄책을 씻고 성부의 의로운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했다.⁶¹ 이와같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해, 구속, 화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해란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 편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만족시키고 거두게 하셨으며, 인간 편을 향하여서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겪으신 것을 의미한다.

59. 칼빈주석, 벰전 1:19.

60. 칼빈주석, 요 1:29.

61. 강요, 2. 12. 3.

신자 각 개인들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희생으로 믿을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실 때 화목의 문을 여시는 것이다.⁶²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구적이다. 이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들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켜 나가신다.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저 한번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효과가 영구적이므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이 결코 쇠함이 없는 능력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 . . 한번의 희생의 능력이 영원하며 모든 시대에 미친다.⁶³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이후에 다른 어떤 제사장적인 희생의 실행은 필요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회적 희생만으로도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충분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모든 인간적 주장이나 노력들은 결국 허황된 것일 뿐이다. 화목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일 때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자격을 인간은 누릴 수 있게 된다.

62. 칼빈주석, 골 1: 21.

63. 칼빈주석, 히 9:25.

지금까지 사역들을 살펴 보았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신앙적 사역들이며 또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신앙의 내용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제5장 신앙의 과정과 결과(이득)

A. 중생(회개)과 칭의

1. 중생(회개)

본장에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유익(이득)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결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중생과 칭의, 그리고 성화및 영화에 관해서 살펴 보려는 것이다. 신앙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숨은 역사는 죄인된 인간에게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닌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이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던 이전 시대와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될 때에 진정한 신앙의 이득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참된 믿음이라면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변화시키게 된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회

개와 죄 용서함이 따른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는 이러한 회개와 죄 용서를 경험한 후에 근본적 변화를 체험케 되는 것이다.

성경은 회개를 부르짖고 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불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귀절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된다. 성경에서는 죄 용서함의 선행으로 회개를 말하고 있다.¹⁾ 이를 중요시 한 칼빈은 회개와 죄의 용서가 복음의 전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칼빈에 의하면 신앙은 회개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본다.²⁾ 이것은 회개와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회개가 신앙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로써 세례요한(마 3:2)과 예수님이 말씀한(마 4:17) 회개의 축구가 구원의 약속과 은혜, 곧 복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칼빈은 들고 있다. 칼빈은 구체적인 예로써 다윗이나 베드로의 회개의 경우와 사울과 유다의 회개를 비교하고 있다. 다윗과 베드로는 사울왕과 유다가 경험한

1. 눅 2:47, 행 3:19, 5:31 등.

2. 루터와 칼빈은 종교 개혁자로 같이 활동 했고, 교리에 있어서도 많은 입장을 같이 했지만 이점에 있어서는 루터와 칼빈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루터는 죄인식에 의한 양심의 공포가 선행한다고 하고, 칼빈은 이와 반대로 죄인식과 회개를 위해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것에 단지 어떤 여분의 요소, 즉 신앙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³⁾ 신앙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였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음을 칼빈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회개의 근원이 믿음에 있다고 할 때에도 신앙이 생긴 후부터 회개할 때까지의 어떠한 시간적 간격을 가정하면 안 된다. 이것은 시간적 간격이라기 보다는 동일 사건의 앞 뒤 순차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게 될 뿐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 속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참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는 회개와 믿음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진정한 회개는 믿음을 떠나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행할 수 있게 된다. 동시적인 사건으로 발생하지만 엄밀히 구분할 경우 회개의 순차가 신앙보다 뒤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믿음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나 믿음과 소망이 서로

3. 정원범, 「갈방에 있어서의 칭의와 성화」, 대전신학보, 1990. p. 5.

4. 강요, 3. 3. 2.

다른 것 같이, 회개와 믿음도 항구적인 줄로 묶여 있지만, 서로 결합 할 필요는 있어도 혼동해서는 안된다.⁵⁾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한 죄로 물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하게 된다. 칼빈은 “심판대를 생각하는 가련한 인간은 일순간도 평안하지 못하고 심지어 호흡까지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⁶⁾ 이렇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이루는 데까지 신앙은 연장된다.

그렇다면 신앙의 결과요 열매인 회개의 내용은 무엇인가? 칼빈은 “회개는 우리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그리고 회개의 요소는 옛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서 성립된다”고 말한다.⁷⁾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대한 욕망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이다.

범죄한 자들은 이러한 것들과 거리가 멀다. 그들은 결코 죄짓기를 그만두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을 계속한다. 그 속에는 참된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범죄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5. 강요, 3. 3. 5.

6. 강요. 3. 3. 7.

7. Ibid.

의 사악한 감정에 대해 슬퍼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고 오직 그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을 요구한다.⁸⁾

회개는 하나님께로 생활을 전향하는 것이다. 그것은 외면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까지도 변모할 것을 요구한다. 영혼이 그 옛 성질을 벗어 버릴 때에 비로서 갱신과 조화되는 행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겔은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겔 18: 31)고 하면서 새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 또 이사야는 위선적인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선포하였다. 결국 회개는 육이 죽는 것과 영이 다시 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회개의 요소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참여할 때 가능케 되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주어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알맞도록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 회개는 곧 중생인데, 중생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거의 잃어 버

8. 사무엘 던 편, 「요한 칼빈의 신학의 진수」, 김득용역 (서울:성광문화사, 1985).p. 71.

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일이다.⁹⁾

여기서 중생과 회개를 같은 의미로 칼빈이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옛 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어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¹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여,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과 연합을 이루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새생명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¹¹⁾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회개의 삶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 칼빈은 세상에서의 완전한 회개의 삶인 성화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말한다.¹²⁾ 그래서 이

9. 강요, 3. 3. 9.

10. 강요, 3. 3. 5.

11.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사상」 기독교 학술연구원 역(서울:기독교 문화사, 1988). p. 157.

12. 칼빈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칼빈의 이후의 사람인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다. 웨슬레는 세상에서도 점진적, 급진적 변화를 통하여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 진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순간부터 점진적인 성화가 지식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전진이 있게 된다. 그리고 죄가 죽음 이전에 그친다면 사물의 본질상 즉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곧 죄가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과 그렇지 않은 처음 순간이 있어야 한다” 로버트 버트너,

세상에서는 완성을 향하여 단지 회개하며 살아갈 뿐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칼빈의 견해를 따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중생에 의해 죄사함을 받지만 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항상 자극 받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죄가 성령의 힘으로 그 지배권을 상실하지만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를 체험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 옛사람이 죽고 영이 다시 사는 이 회개는 인간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고 또한 순식간에 일어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개를 목표로 노력하며, 일생을 통해서 회개에 몸을 바치며, 끝까지 회개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나 부르시는 목적은 회개시키려는 것이었다.¹³

이와같이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회개의 전 과정은 한순간 혹은 일년에 완성되지 않는다.¹⁴ 오히려 계속적이고 때로는 완전한 전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인간을 불러 일으키사 이전의 그리고 계속 유혹하는 죄에 대한 전투 참여를 하게 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지속되며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끝이

로버트 차일즈 편, 「웨슬리 신학개요」, 김운기 역 참조.

13. 강요, 3. 3. 20.

14. Ibid., 3. 3. 9.

날 것이다.¹⁵ 즉 육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혼련하여 드디어 육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관하시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는 것이다.

2. 칭 의

타락되었던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재 창조된다. 그러므로 그의 영을 통해서 살 때 인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 즉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칼빈은 칭의(稱義, 혹은 義認)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칭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즉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의 교제를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며,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자기 의 것인양 그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것이다.¹⁶

15. Ibid.

또한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의 은혜 안으로 맞아들이는 용납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¹⁶⁾ 그것은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즉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서 용납되며 하나님과 화해됨을 말하는 것이다.¹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는 믿음과 행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판정되면서 인간의 더러운 죄가 용서되는 것을 의인(義認) 혹은 칭의(稱義)라고 말한다. 즉 칭의는 하나님에 의하여 신앙이 생기는 순간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칭의는 인간에게 요구된 어떤 선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믿음에 의한 수동적인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간 밖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업적이나 능력 등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믿음에 의한 칭의 가운데 이중적인 면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 의

16. Ibid., 3. 17. 8.

17. Ibid., 3. 11. 2.

18. 정원범, p. 5.

하여 이룩되는 또 하나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는 성경 귀절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이중적으로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칼빈의 본 뜻은 카톨릭적 신학자들이 내세우는 성경적 증거(행 10:34-35)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라는 이중성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속에서 더 발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로워진 신자가 이루는 전 생애적 의인일 뿐이지, 이것을 불신자가 이루는 자기 과업적 의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니이젤도 이와 같은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칼빈과 똑같이 인간의 선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의인과 그 믿음의 열매 곧, 행동이라는 의인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²⁰⁾

결국 칼빈이 설명하는 칭의란 인간의 자기 의와 선행의 업적 등 어떤 능력으로도 되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좌우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칭의) 인간의 무죄함을 확증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들로서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지 특별한 은혜를 인간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19. 강요, 3. 17. 4.

20. Ibid., 3. 17. 5. 니이젤, 「칼빈의 신학」, pp. 132f.

B. 성 화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버렸던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이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 받게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는 생활의 변화 즉 성화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두가지 방법으로 거하신다. 그 하나는 그 영으로써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제하심에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그의 의로움의 분담자로 만드는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는 아무일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살펴 보심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²¹⁾

여기서 구원받은 인간과 성화의 과정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강한 연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칭의가 순수하다면 그것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효력있는 성화로 연장되어 진다. 확실히 칭의와 성화는 서로 무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이 두 은총중 어느 것을 제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칭의와 성화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어지는 최상의 은사이다. 칼빈은 성화와 칭의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동시적인 은사로 이해함으로써 이 양자를 잘 조화시키고 있다. 즉 선행을 배제하지 않으나 선행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여 이 양자가 분리될 수 없음

21. J.리차드, p.148.

을 강조한다. 이 은총들은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²² 그리스도께서 여러 부분으로 나뉠 수 없듯이 우리도 동시에 그리고 연합적으로 주어지는 이 두가지 은총의 사실 즉, 의와 성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²³

이처럼 칭의와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실이며 하나의 통일을 이룬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연결성을 지녔지만, 그것들의 특성 때문에 구원받은 인간에게서 의인과 성화를 구별해 볼 수 있다. 칭의는 처음에 그것을 받을 때부터 완전하게 주어진다.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한 만큼 완전한 것이다.²⁴ 여기에 비하여 성화는 이 세상의 삶 동안에 계속 이어져야 한다. 신앙인이 아무리 진보를 이룬다 할지라도 죽을 때 까지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칭의란 인간의 현실은 不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義의 전가이며,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간의 내면 세계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라는 것이다. 성화는 인간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변화로서 칭의에 근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된 인

22. Ibid., 3. 16. 1.

23. Ibid., 3. 11. 6.

24. 웬델, p. 257.

간은 순간 순간 성화의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²⁵ 그래서 성화도 의인과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기인한다고 칼빈이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생각으로부터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은 회개한 죄인은 신앙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²⁶

성화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고 영혼 자체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와 같이 죄에서 죽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성화는 곧 이 연합된 생활을 의미한다.²⁷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종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성화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 죄인이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동참하여 의로워진 인간은 영혼과 온 생활까지도 성화의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죄와 접촉하며 죄악의 유혹에 더불어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화는 계속 진행되어져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종국적으로는 맞아야 하는 존재로서 실제로 범죄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에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25. 강요, 3. 16. 1. 리차드, p. 137 참조.

26. Ibid., 3. 3. 5.

27.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Vol. 2. p. 213.

극복하시고 성화의 길을 개척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투쟁을 죽을 때까지 한 평생 계속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변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칼빈은 “인간의 마음과 외적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다 더욱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점진적 과정”이라고 하였다.²⁸⁾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던 성도의 육적인 부패를 씻어주는 과정으로서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진다.

신자는 전 생애를 통하여 죄와 싸우며 성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회개의 경주 과정을 통하여 일생토록 수련케 하시는 것이다.²⁹⁾

그래서 칼빈의 의인론과 성화론을 살펴보면, 인간의 영적 생활속에 전 생애를 걸쳐 성결케 되려고 하는 노력은 성령께서 도와 주실 때 가능케 된다. 즉 성령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심을 깨닫게 된다. 리차드는 칼빈이야말로 성령의 새로운 강조점을 보여 준 학자라고 평가 하였다.³⁰⁾ 리차드에 의하면 성령의 능

28. Ronalds Wallace, p. 25.

29. 강요, 3. 3. 9.

력은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 사이에 개재해 있는 살아있는 결합력을 의미한다. 칼빈의 아래와 같은 설명을 볼 때 리차드의 말은 올바른 것이라 인정할 수 있다.

주께서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과 영혼이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의 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이 줄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수로와 같아서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성질과 소유는 그 수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³⁰

그런데 칼빈의 위 인용문은 성령을 단순히 유지시켜 주는 힘만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칼빈은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성화의 과정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가도록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성령의 사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성령 외에도 성화의 삶을 끌고가는 길잡이의 역할로서 율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율법의 용법이나 기능에 따른 구분을 하면서 율법의 세번째 용도는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해야 할 규범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율법은 성화의 삶을 끌고 가는 길잡이 역할도 하는

30. J. 리차드, p. 153.

31. 강요, 4. 17. 12.

것이다.

그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더 철저하게 익혀가며 그것을 납득하여 확신케 하는데 최선의 기구가 되도록 한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 순전한 지식에로 나아가며 육체의 태만을 극복하여 더욱 선명한 삶에로 전진하게 된다.³²

앞에서 고찰해 본 것처럼 칼빈에게 있어서의 성화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성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참된 경건과 의와 정결과 지식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니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화의 완성을 비관시 할 정도로 인간의 불완전과 죄를 탄식하였다. 실상은 죽는 날까지 성화는 완성되기 힘들며, 성화가 전진되면 될수록 더욱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는 어려움을 깨달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수한 자비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고 칼빈은 보았다.³³ 의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 지듯이 성화도 그리스도의 거룩하

32. Ibid., 3. 7. 12. 율법의 제 기능 중에서 세번째 기능은 성도의 삶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33. 이장식, p. 214에서 재인용.

것이다.

그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더 철저하게 익혀가며 그것을 납득하여 확신케 하는데 최선의 기구가 되도록 한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 순전한 지식에로 나아가며 육체의 태만을 극복하여 더욱 선명한 삶에로 전진하게 된다.³²⁾

앞에서 고찰해 본 것처럼 칼빈에게 있어서의 성화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성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참된 경건과 의와 정결과 지식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니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화의 완성을 비관시 할 정도로 인간의 불완전과 죄를 탄식하였다. 실상은 죽는 날까지 성화는 완성되기 힘들며, 성화가 전진되면 될수록 더욱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는 어려움을 깨달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수한 자비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고 칼빈은 보았다.³³⁾ 의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 지듯이 성화도 그리스도의 거룩하

32. Ibid., 3. 7. 12. 율법의 제 기능 중에서 세번째 기능은 성도의 삶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33. 이장식, p. 214에서 재인용.

심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완전한 의의 보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듯이, 우리의 완전한 성화의 보장도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C. 영 화

기독교인들은 어느 누구나 내세의 소망을 중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흥미를 끼치고 있는 책들은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는 듯이 종말론에 관계되는 책들인 것을 보게 된다. 칼빈도 역시 내세의 소망을 매우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세의 삶에 비하면 현재의 삶은 무시해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멸시하며 싫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³⁴ 이 말을 얼핏 들으면 현실 도피를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는 현실 도피를 의미하기 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보다 훨씬 능가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세례파식의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34. 강요, 3. 9. 4.

아니다. 재세례파들이 열렬한 신비주의와 내세관을 강조할 때 칼빈은 그들을 광란자라고 까지 몰아 붙였었다. 그들이 성령의 직접적 계시성을 강조하는 속에서의 내세관에 치중했다면, 칼빈은 성경이 제시해 주는 내세의 영광스러움에 깊이 심취하는 신비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내세의 영광스러움을 논할 때에는 신자의 부활을 먼저 제시해야만 한다. 칼빈은 육체라는 인간 장막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썩을 것이요, 곧 없어질 것이며, 쇠퇴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분해된 후에는 곧 새로워져서 다시 견고하게 되며, 완전케 되어 썩지 않는 영광으로 변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라고 하였다.³⁵ 이러한 부활의 모습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짐승들과 나무, 돌같은 무생물까지도 자기의 현존 상태의 허무함을 느끼고 부활이 있을 때를 동경하면서 그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허무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있다.³⁶ 이러한 그의 주장은 육체를 지닌 인간만이 변화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견하는 것이다. 그 때에는 인간의 몸이 단순히 부활하는 것만은 아니다. 주께서 악한 일과 불행한 일이 가득한 이 끝없는 심연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그의 생명과 영광의 복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³⁷

35. Ibid., 3. 9. 5.

36. Ibid.

칼빈은 믿음을 통해서 성경은 두가지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교(고전 15:16)할 때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빌3:21)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⁷⁾ 칼빈에게 있어서는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영의 불멸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영혼과 아울러 그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랄 것이 기원(설전 5:23)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능력으로 구원한 인간의 몸이(고전 3:16) 부활의 소망없이 썩어 버린다면 이같이 불합리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칼빈은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의 말씀인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의 귀절을 통해,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몸이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의 몸의 상태 그대로 부활할 것인가? 이에 대해 칼빈은 아니라고 한다. 본체(substance)로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나, 그 성질(quality)이 다르다고 주장한다.³⁸⁾ 그리스도께서는 제물로 바

37. Ibid., 3. 9. 5,6.

38. Ibid., 3. 25. 4.

쳐지신 그 몸으로 부활 하셨는데,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이미 보여 주었다. 이처럼 우리들도 몸의 본체는 보유하겠지만 변화가 생겨서(고전 15:51-52) 나중 상태는 훨씬 훌륭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때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릴 것이며(사 25:8, 호13:14, 고전 15:54, 55) 부활이 성취될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영원한 행복을, 즉 부활의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권능과 의를 그의 선택된 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아니 자신을 그들에게 주셔서 즐기게 하시며, 심지어 그들을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면,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모든 행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고, 하늘에서는 영광으로 그들을 장식하리라는 것을 안 바울은, 자기의 수고에 해당하는 특별한 면류관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딤후4:8).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그의 몸의 영광을 각양 각색의 선물로 나타내기 시작하시고 점점 그 영광을 증대하시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그 영광을 완성하실 것이다.¹⁾

칼빈이 보았던 것처럼 성도는 부활을 예견하며 사는 사람이

1. Ibid., 3. 25. 8.

2. Ibid., 3. 25. 10.

되어야 한다. 이 예전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신앙 유익과 함께 부활을 더욱 기대하며 살게하는 것이다. 일찌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하였다. 칼빈은 분명히 이같은 신앙을 지니고 살았음을 보게 된다. 칼빈이 그렇게도 소망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서 완성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부활 후의 인간이 지닌 영화로운 삶에서 가능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때에 영광스러운 완성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라든가,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라든가, 상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영화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것을 예견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만 이루어 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끝까지 견인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화케 될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인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영화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따라서 富, 健康, 名譽, 權力, 快樂등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므로 물질이 영혼까지 만족시킨다고 생각했다.¹⁾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 영적인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신앙만이 범위한 인간의 현재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러한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말라 했다. 그의 역저인 기독교강요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타락된 인간이 신앙을 갖고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강요 전체를 통하여 신앙에 대한 발생, 내용, 결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볼때 오늘날의 사람들이 혹시 기독교강요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얼마나 기독교강요를 중요시 하고 있는가? 자문해 본다.

필자는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신앙의 전제를 살펴 보았다. 여기서 하나님은 피조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스스로 존재하는 거룩한 분이심을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1. 눅. 12: 9.

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였음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형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상실되자 왜곡되고 기형적인 형태로 자연인 속에 남은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롬 3:23), 하나님의 정죄만이 남아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다.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파고 들었던 것이다.

3장에서는 신앙의 발생과 내용을 다루었다. 무지를 구실삼아 핑계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타고난 본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운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의 씨앗이었다. 그러나 이 종교의 씨앗을 소중히 키우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더구나 열매를 맺게하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게 아니라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신앙을 일으켜주는 발생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 지식을 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自己卑下이신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과 함께 하시고 신앙을 주셨다.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데, 삼위일체중 한 위격을 가지신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신앙을 발생시켜 주며 유지시켜 주시는 일을 한다.

4장에서는 신앙의 내용, 곧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았다. 둘째 아담이

되시며,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사역,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화목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살피 신앙이 무엇인지 보았다.

5장에서는 신앙의 과정과 결과(이득)를 살피 보았는데 신앙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제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버렸던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 인간의 마음과 외적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 순종하며 헌신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일생을 경주해야만 한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영광스러운 완성을 보게되며 누리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Let God be God),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라”(Let Christ be Christ)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날 더욱 실감하게 된다.²⁾ 이말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통적이며 진정한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위치를 올바르게 돌려 드려야 한다는 말이다.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위엄, 영광,

2. 김기홍, 복음주의 교회사 강의 내용중. 1989, 봄학기.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과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강요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결과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칼빈의 신앙관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올바르게 간직해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도 서

- Berkouwer, G. C. Ma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62.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ed. by David W. Torrance,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 Mick, Wm. B. Eerdmans Pub. Co. 7, 1559-1973.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 T. Mcneil 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3.
- Calvin,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L. C. C. Ichthus ed. Teanslated and edited by J. K. S. Rei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ersss, 1963.
- Dowey, E. A.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 Gonzalez Justo 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3. The Parthenon Press at Nashivill: Tennessee, 1979.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Translated by Harold Knigh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6.
- Torrance, T. F.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Luttewroth Press, 1949.
- Wendel, Francis. Calvin. Translated by Philip Mairet. N. Y.: Harper & Row, Publishers, 1963.
- 김기홍. 「천국의 기둥- 교회사 순례」 서울: 두란노 서원, 1989.
- 김용수.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양육." 목회학박사 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7.

- 김정준. "성서의 인간이해". 「기독교사상」 1978년 2월호.
-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한국 문서선교회, 1988.
- 다킨. 「칼빈주의」 이병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5.
- W. 스코트. 「개신교 신학 사상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8.
- W. P. 암스트롱. 「칼빈의 종교개혁사상」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 도날드 K. 맥킴.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 로버트 A. 피터슨. 「칼빈의 구원의 도리」 황영철 역. 서울: 품만출판사, 1987.
- 루이스 벌롭. 「벌롭조직신학 -인간론」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8.
- _____. 「벌롭조직신학-신론」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8.
- _____. 「기독교 신학개론」 신복운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문성남. "복음전도 훈련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의 한 연구." 목회학박사 학위논문.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 1987.
- 베른하르트 로제. 「기독교 교리사」 구영철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8.
- B. B 월필드. 「칼빈. 루터. 어거스틴」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사무엘 던. 「요한칼빈의 신학 진수」, 김득용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박영남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85.
- A. C. 구스탕스. 「칼빈의 교리신학」,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86.
- R. 스타우퍼. 「종교개혁(1517-1564)」, 박건택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9.
- R.C. 리드. 「칼빈이 가르친 복음」, 정중은 역. 서울: 새순 출판사, 1986.
- F. 웬델. 「칼빈의 신학서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 엠마오, 1988.
- 이근삼외 공저. 「칼빈주의 특성과 강조점」, 서울: 엠마오, 1986.
- 이수영. “칼뱅의 인간론.” 「빛과소금」, 1985년 5월호.
- 이장식. 「기독교사상사」, 전 2권.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_____. 「기독교 신조사」, 서울: 컨콜디사, 1979.
- _____. 「기독교 사상사」, 전 2권.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8.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_____.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_____. 「신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_____.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84.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한신대학 출판부, 1984.
-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80.
- 정원태. 「열정 칼빈주의」,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85.
- J. 리차드. 「칼빈의 영성」,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86.
- J. L. 니이브. 「기독교 교리사」 전2권. 서남동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존. 머레이.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 역. 서울: 예수교 문서회, 1976.
- 존. 스타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박수준 역. 서울: 소망사, 1980.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종흠, 신복운,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 , 「기독교강요요약」,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89.
- , 「구약성경주석」, 전집.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신교출판사, 1982.
- , 「신약성경주석」, 전집. 존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신교출판사, 1982.
- 칼 F. H. 헨리 편. 「기독교 기본신학」,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88.
- 쿠르트 알란드. 「종교 개혁가들」, 김홍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 크리스토 네스. 「칼빈주의자가 본 알미니안주의」 강귀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 T. E. 토랜스.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한국칼빈주의, 1982.
- 한철하. “신앙과 신학.” 「아신 제3집」 서울: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 1988.
- , “신앙교육과 신본주의.” 「성경과 신학 제2집」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4.
- 헨리 미터. 「칼빈주의」 박운선, 김진홍 역.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81.
-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 이형기, 차종순 공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0.
- 신학교재 편찬위원회 편. 「간추린 교회사」 서울: 세종문화사, 1987.

'FAITH' IN THE CALVIN'S INSTITUTES OF RELIGION

Hwang, Kuk Hwan
M. A. in Theology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I. INTRODUCTION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human life? Many people give priority to worldly things such as wealth, health, fame, power, and pleasure. The foolish rich man in the Bible thought that his material goods could satisfy his soul saying "Soul, you have ample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ake your ease, eat, drink, be merry" (Luke 12:19, RSV). But man cannot be satisfied with only such worldly things. To man faith in God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because this faith alone can solve the problems of his corrupted being.

In this respect Calvin had a thirst to establish correct faith. I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he showed that in God's sovereign grace corrupted man should be saved through faith. It is certain then that Institutes is full of the genesis, contents and result of faith.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study

Calvin's view of faith in the Institutes.

II. PREMISES OF FAITH

Faith may be based upon various doctrines. God is holy and self-existent, different from His creatures. In contrast man as His creature is special being created in the image of God. But this image was lost and distorted owing to man's violation the divine command; yet image has remained in natural man in a broken form. Man, corrupted by disobedience, has become greedy, arrogant, and ungrateful. Now man has fallen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 3:23), and what remains is the divine punishment of sin which results in death. This original sin influenced all human beings.

III. THE GENERATION OF FAITH

In order that man cannot make an excuse under the pretext of ignorance, God destined man to discern His handiwork in nature. This perception is the seed of religion. But few cultivate assiduously this seed of religion. Rather, instead of seeking God, man seeks false with this seed. This shows that man cannot exercise faith in the true God by himself. The generator of faith is God. God alone can give true knowledge of faith through His revealed word And being with man Christ gave faith to man who

cannot enter the presence of Go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invisible to human eyes unites us with Christ, who gives us faith. And the word, the revelation of God, enables us to relate to the trine God and it generates faith and maintains it.

IV. THE CONTENT OF FAITH

As the content of our faith, Jesus Christ became true man to save us. He restored eternal life and goodness to his nation which was lost owing to the disobedience of the first Adam. Jesus Christ bore all the sins of man and was killed on the cross as the sacrificial offering for sin. But He rose again in the resurrection and became victor by conquering Satan.

V. PROCESSES AND RESULTS OF FAITH

With the right faith man can evaluate himself correctly, turn from his sinful ways, and be recognized as righteous by the grace of God. Now man, who lost the image of God owing to his corruption, becomes a new creature.

But it is impissible to be sanctified completely in this life. Through the process of obedience and consecration to Christ, the external and internal life can be progressively sanctified in

conformity to the kingdom of God. Christians living in such a way will see and enjoy its glorious completion finally.

VI. CONCLUSION

So far the truth is clarified that God is God and that man is man. And the truth is also realized that let God be God, and let Christ be Christ, which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God and Christ rightly.

In hi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Calvin said that it is possible to realize faith through the sovereignty, majesty and glory of God, the work of Chris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e Word. And he said that the triune God is the object and content of faith. Through his Institutes he also showed the result of true faith.

In this respect it is through cautious and circumspect study that we can realize that it is necessary to cherish our faith in the presence of God.